



고문 장 규 호

진정한 오리 명품의 출현을 환영한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쇠고기 보다 비싼 유기축산 돼지고기, 일반계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값을 자랑하는 축산물 등이 심심치 않게 전파를 타고 있다.

물론 모든 축산인들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것을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 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면면에서 보이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육계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미국과의 F.T.A등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체결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육류 소비패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쇠고기를 좋아하는데다가 값까지 싸진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미국에서 오리고기가 수입 안된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상태는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육계산업의 발전이 약 10여년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구조를 보면 수입닭 : 55% 자국산 : 45%의 비율인데

그나마 자국산 중에서도 각 현마다 지계(우리나라의 토종닭)가 개발되어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한다.

오리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유향오리 등 이 나와 인기를 끌은 적이 있으나 가격대는 일반 오리에 비해서 마리당 500-1000원 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엔 식이 유향이 나와 유향의 단점인 냄새가 사라져 평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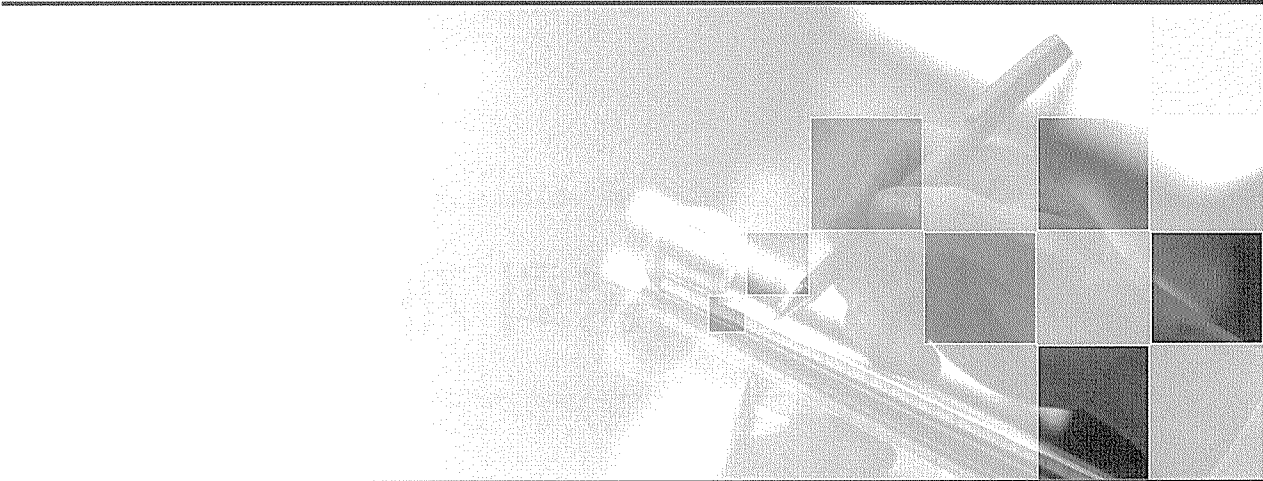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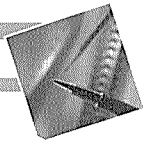
전에도 화인코리아에서 오메가3지방산을 강화한 오메가오리, 녹차 오리 등이 개발되었으나 큰 인기를 끌지 못 했던 것 같고, 주원산오리의 향산 화제인 아스타잔틴의 특성을 살린 아스타오리, 모란식품의 셀레늄오리 등이 개발 되었으나 가격적인 면에서 크게 차별화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오리계열 업체의 기능성 오리고기를 향한 개발 열풍이 드셨었던 점이 닭고기 계열업체에서 큰소리를 치게 되었던 이유이다.

이 점에서 오리계열화 업체에 감사를 드린다.

수입품이 아무리 싸다해도 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싼 제품을 찾고 가격이 비싸다 해도 맛과 기능성에서 뛰어나다면 그런 제품을 찾는 것이다.

서두에 말한바 있지만 위와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자 희망하는 것은 업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아는 것은 극히 힘든 것이다.
나는 이럴 때 감히 “易地思之(역지사지)”의 秘傳(비전)을 권하고 싶다.

여기에서 역지사지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 보라는 말이다.

소비자의 트렌드가 어떤지 ,소비자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 가려는 생산자들의 혈떡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 이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격투기를 보니까 각종 운동을 할 만큼 한 선수들이 격투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지독한 체력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의 기업들도 비슷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 일까?

최근에 업무관계로 모 육계 계열화 업체에 자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易地思之(역지사지)의 비전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썩 닭고기 생산에 전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역지사지 대신에 "입장 바꿔 생각하기"란 말이 어떨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해매고 있는 사이에 치열한 경쟁사회의 뒤켠에 서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부분도 業界(업계)에서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목에서 이야기 했던 오리제품의 명품은 무엇인가?

M 사 에서 출시한 무항생제 제품이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오리로스 800g짜리가 11,800원에, 양념 불고기가 12,500원, 훈제 300g짜리가 11,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가격은 일반 오리고기의 약 2배로서 과연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시장은 좁으나 점점 시장은 커질 것이다.

내가 왜 이점을 강조 하느냐 하는 것은 업계종사자들의 관심이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든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겠지만)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다.

지금 세계의 발전은 앞으로의 10년은 지나간 10년보다 10배 이상 바뀔 것이다.

그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선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무리한 욕심 일까?

2006.4.17